

시퍼퍼스 '박정아 딜레마'

'FA 최대' 연봉 7억7500만원 영입했지만 제 활약 못해
갖은 부상에 부진 이어져...정관장에 또 패배 15전 '전패'

시퍼퍼스가 '박정아 고민'에 빠졌다.

박정아는 지난 8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정관장에서 어깨 부상으로 단 2득점만 올린 채 교체됐다. 이날 페퍼스는 '전적' 정관장을 상대로 세트 점수 1-3으로 지며 '15전 전패'를 기록했다.

경기 전 페퍼스 조 트린지 감독은 "과거는 과거다. 경기 하나 하나에 집중하자는 마인드"라고 이야기하며 6연패 탈출에 나섰지만 결과가 좋지 못했다.

이날 페퍼스의 '주장' 박정아의 부진과 부상이 아쉬웠다. 서브와 리시브는 속제도 생겼다.

박정아는 1세트부터 리시브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2세트에서는 박정아의 부상이 발생했다. 수비를 위해 몸을 날린 박정아는 착지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다쳤다.

결국 박정아는 1세트와 2세트 각 1득점씩을 올린 채 코트에서 물러났다.

코트 밖에서 경기를 지켜본 박정아는 연신 밴드

로 스트레칭하며 어깨 회복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코트에 오르지는 않았다.

조 트린지 감독은 "뛰라고 하면 뛸 수 있다고 했겠지만, 어깨 때문에 공격에 제약이 있을 것 같아서 뛰라고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정아를 대신해 투입된 박은서가 분위기를 바꾸며 2세트를 쟁겼지만 결국 페퍼스는 3-4세트에서 낮은 리시브 효율을 기록하며 정관장에게 승리를 내어줬다.

이날 아스민은 21득점을 올리면서 '고군분투'했지만 정관장의 '쌍포' 메가와 지아가 각각 23점, 19점을 만드는 등 둘이 합해 42점을 올려내며 페퍼스를 물렸다.

페퍼스는 지난 4월 FA시장에서 '리그 최고 공격수' 박정아를 최대연봉인 총 7억 7500만원으로 데려왔다.

이 과정에서 박정아의 보상선수를 놓고 이고은이 한국도로공사로 갔다가 복귀하는 해프닝도 있

었다. 우여곡절 'FA 대어'를 영입했지만 페퍼스는 박정아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팀에서 중요한 '키맨'이 될 것이라 기대한 것과 달리 페퍼스는 올 시즌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2년 연속 최하위였던 페퍼스는 여전히 승점 6점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고전하고 있다.

조 트린지 감독은 정관장전이 끝나고 취재진으로부터 박정아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서브와 서브 리시브가 이번 시즌 우리 팀의 가장 큰 숙제가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팀 상황에 대해 "정답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올바른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로 페퍼스(2승 12패-승점 6)는 7연패에 빠졌다. 변화가 필요한 페퍼스, 박정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절실하다.

한편 박정아의 어깨 상태는 다행히 '괜찮은 상태'다.

페퍼스 관계자는 "지금 어깨는 괜찮은 상태.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었고 훈련에도 다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오타니 '7억달러의 사나이'

LA다저스와 10년 초대형 계약
9200억원... MLB 역대 최고액

일본인 야구스타 오타니 쇼헤이(29·사진)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10년 7억 달러(약 9200억 원)의 초대형 자유계약선수(FA) 계약에 합의했다.

오타니는 9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나는 다저스를 나의 다음 팀으로 택했다며" "결정을 내리는 데 너무 긴 시간이 걸렸다. 죄송하다"고 썼다.

그는 "지난 6년 동안 응원해주신 (전정팀)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구단과 팬들, 이번 협상 과정에 참여해주신 각 구단 관계자에게 감사드립니다"며 "다저스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선수 생활이 끝날 때까지 다저스뿐만 아니라 야구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타니의 에이전트인 네즈 발레로는 이날 계약 조건이 10년 7억 달러라고 발표했다.

이는 에인절스의 외야수 마이크 트라우트가 2019년에 맺은 MLB 역대 최고 계약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다.

트라우트는 당시 에인절스와 12년 4억 2650만 달러에 계약해 '4억 달러' 시대를 열었다.

오타니는 5억, 6억 달러를 넘어 단숨에 7억 달러의 문을 열어젖혔다.

오타니는 연평균 7000만 달러(924억원)를 받으며 이 역시 MLB 역대 최고액이다.

이전까지는 투수 맥스 셔저(39), 저스틴 벵랜더(40)가 뉴욕 메츠에서 받았던 4333만달러가 최고 연봉 기록이었다.

AP통신은 "오타니의 연봉은 볼티모어 오리올



스, 오를랜드 에슬레틱스의 선수단 전체 급여를 초과한다"고 전했다.

투타를 겸업하는 오타니는 2013년 닛폰햄 파이터스에 입단해 일본 프로야구에서 '이도류(二刀流·투타겸업)' 돌풍을 일으킨 뒤 2018년 에인절스에 입단했다.

오타니는 빅리그 데뷔 첫해인 2018년 타자로서 22홈런, 투수로서 4승을 거두며 아메리칸리그(AL) 신인상을 받았고, 2021년과 2023년 AL 최우수선수(MVP)가 되며 MLB를 평정했다.

그는 두 차례나 '만장일치'로 MVP 트로피를 받았다. MLB 최초 기록이었다.

오타니는 불가능의 경지로 여겨졌던 투타 겸업을 수행하며 수많은 '최초 기록'을 쏟아냈다.

그는 MLB 6시즌 통산 투수로서 38승 19패, 평균자책점 3.01을 마크했고, 타자로서는 171홈런, 437타점, 통산 타율 0.274를 기록했다. 장타율과 출루율의 합체인 OPS는 0.922를 기록하며 슈퍼스타의 기준인 0.9를 훌쩍 넘겼다.

오타니는 MLB를 넘어 야구 역사를 새로 쓴 선수로 평가받는다.

다만 오타니는 2023시즌 도중 오른쪽 팔꿈치를 다쳐서 내년 시즌엔 지명타자만 된다.

일각에선 1년 동안 투수로 뛸 수 없는 오타니의 몸값이 예상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했지만, 오타니는 이를 비웃듯 예상치를 훌쩍 넘어 7억 달러 '짜꿨'을 터뜨렸다.

오타니는 올겨울 스토브리그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다저스와 토론토 등 북부 구단은 FA 오타니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미국 매체는 오타니의 행선지를 예상하는 기사를 수없이 쏟아냈다.

/연합뉴스

오타니, 내년 봄 서울서 본다

3월 고척돔서 MLB 개막전
다저스 이적 후 첫 공식 무대
샌디에이고 김하성과 맞대결

역대 최고 몸값을 기록한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29·로스앤젤레스다저스)의 첫 공식 경기 무대는 미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이다.

오타니의 다저스행으로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공식 개막전이 열리는 서울은 전세계 야구팬들의 큰 관심을 받게 됐다.

MLB 사무국은 지난 7월 2024 정규리그 개막전을 2024년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벌인다고 발표했다.

MLB는 야구의 세계화와 MLB 홍보를 위해 세계 각지에서 개막전을 펼쳐왔는데, 내년엔 서울을 잠적은 것이다.

경기장소는 추운 날씨에 따라 국내 유일의 돐구장인 서울 고척스카이돔이 유력하다. MLB 관계자들은 올여름 고척돔을 찾아 시설을 면밀히 살폈다.

매치업도 일찌감치 결정됐다. 김하성이 뛰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박찬호, 류현진 등 한국 선수들과 인연이 많은 다저스가 내한한다.

'김하성의 금의환향 무대'가 될 것 같았던 MLB 서울 개막전은 오타니의 다저스 입단으로 엄청난 열기를 띠게 됐다.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에서 뛰다가 자유계약선수(FA)가 된 오타니는 10일 다저스와 계약기간 10년, 총액 7억 달러(9천200억원)의 역대 최고액에 계약했다.

오타니는 다저스 선수들과 함께 내한해 첫 '공식 경기'를 치른다.

투타 겸업을 하는 오타니는 고척돔 마운드는 오

르지 않을 예정이다.

오타니는 2023시즌 막판 오른쪽 팔꿈치를 다쳐 수술대에 올라 1년 이상의 재활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타니는 투수로는 등판하지 않고 지명타자만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샌디에이고 선발 투수인 다르빗슈 유와 일본인 투타 맞대결을 펼칠 수도 있다.

일본 매체들의 취재 열기도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샌디에이고는 이정후의 행선지 후보로도 꼽힌다.

샌디에이고는 최근 주전 외야수 두 명을 뉴욕 양키스로 트레이드한 뒤 새 자원을 찾고 있다. 이정후가 유력한 영입 후보다.

오타니, 이정후, 김하성 등 아시아 최고 선수들의 향연이 서울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심각' 박정아가 지난 15일 현대건설전에서 경기가 풀리지 않자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男 피겨, 차준환 넘은 '김현겸'

ISU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준우승...한국 남자 최고 성적

피겨 남자 싱글 '차세대 주자' 김현겸(한광고)이 2023-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준우승하며 한국 남자 선수 역대 최고 성적을 작성했다.

김현겸은 지난 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3-2024 ISU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5.03점, 예술점수(PCS) 72.57점, 합점 1을 합쳐 146.60점을 받았다.

지난 7일 쇼트프로그램에서 77.01점으로 선두에 오른 김현겸은 프리스케이팅 점수를 합쳐 총점 223.61점으로 일본의 나카타 리오(227.77점)에게 4.16점 차로 역전 우승을 내주고 최종 2위를 차지했다.

한국 남자 싱글 선수가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한국 남자 선수의 역대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최고 성적은 2016-2017시즌 차준환(고려대)의 동메달이었다. 김현겸이 7년 만에 '최고 성적'을 경신했다.

전날 신지아(영동중)가 여자 싱글 은메달을 따낸 상황에서 한국 피겨는 이번 대회를 통해 역대 처음으로 남녀 선수가 모두 시상대에 오르는 즐거운 장면을 연출했다.

김현겸은 이번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2차 대회 은메달과 5차 대회 금메달을 앞세워

이번 시즌 상위 6명만 출전하는 '왕중왕 대회'인 파이널 대회에 나섰다.

함께 출전한 임주현(수리고)은 총점 209.99점으로 4위를 차지하며 아쉽게 메달을 놓쳤다.

점프 완성도에서 나카타에게 밀린 게 아쉬웠다.

마지막 연기자로 나선 김현겸은 첫 번째 점프 과제인 쿼드러플 토루프(4회전)에서 넘어지며 수행 점수(GOE)를 4.75점이나 깎아 불안하게 출발했다.

이어진 트리플 악셀(공중 3회전)과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깔끔하게 뛰어 점수를 쌓은 김현겸은 이어진 트리플 플립에선 아텐션(에지 사용 주의) 판정을 받았다.

플라잉 카멜 스핀을 레벨4로 처리한 김현겸은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에서 회전수가 살짝 부족해 GOE 0.67점을 손해 봤지만 이어진 트리플 루프-더블 악셀-더블 악셀 시퀀스 점프, 트리플 살코는 무난하게 처리해 가산점을 쟁겼다.

김현겸은 코레오 시퀀스에 이어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과 플라잉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으로 모두 레벨4로 마무리하며 연기를 마쳤다.

우승을 위해선 프리스케이팅에서 150.77점 이상이 필요했지만, 김현겸은 146.60점에 머물러 나카타에게 금메달을 내줬다.

/연합뉴스